[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] ② "딸과 평생 한번뿐일 삼보사찰 순례"

박봉영 기자 | 이경민 기자 | 승인 2021.10.11 15:50 | 호수 3687 | 댓글 0

천리순례에서 만난 사람들 - 하정수 박선민 모녀

삼보사찰 천리순례 유일한 모녀 참가자. 하정수 박선민 모녀.

삼보사찰 천리순례 고된 일정 가운데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. 하정수(56), 박선민(31) 씨다. 순례 내내 힘에 버거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한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은 언뜻 자매 같아 보이지만 사이좋은 모녀 사이다.

천리순례 참가 계기는 어머니 하정수 씨 제안에서 나왔다. 천리순례단 모집 소식을 들은 하 씨가 두 딸에게 함께 가자 했던 것. 평소에도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성지순례를 함께 다니던 세 모녀였기에 두 딸도 흔쾌히 받아들였다. 다만 스케줄 논의 끝에 직장 일로 바쁜 첫째 딸을 제외하고 둘째 딸만 참가 신청서를 냈다. 두 모녀는 순례를 위해 한달 내 중랑천과 한강 등 하천 산책로를 함께 다니며 모의 연습도 했다고.

어머니 하 씨는 "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삼보사찰 순례를 꼭 딸과 함께 하고 싶었다"며 "막상 와보니 힘들어도 오길 잘했다 싶다"고 했다. 하루 평균 6~7시간을 걷는 고된 여정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길을 걷다보니 이유없이 불안 증세를 나타내며 하 씨를 괴롭히던 공황장애 증상도 어느새 사라졌다고.

하 씨는 "걷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"며 "자승스님에게 감사한 마음 뿐"이라고 했다. 하 씨는 "마치 말 잔등에 올라타 광야로 향하는 한 마리 작은 개미처럼,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회주 스님과 순례단이라는 말 잔등에 올라타 삼보사찰을 두 발로 직접 걷는 진귀한 경험을 하고 있다"며 "그래도 '전생에 너무 나쁘게만 살지 않았구나'라는 생각과 함께 남은 인생도 더 감사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"고 했다.

불교신문TV 더보기

포토뉴스

섹션별 최신기사

종단 "막말 정청래 사퇴하라"...1인 차량...
전국 심곡암,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 ...
사회&국제 세상을향기롭게, 굿윌드자...
인물 [동정] 정도스님, 가사불사 회향 점...
대중공사 [여시아문] 아이들에게 배운다

많이 본 기사

1 [원과스님의 해
2 前 경주 기림사
3 불조 혜명 계승
4 대종사·명사 스
5 총무원장 원행
6 "아들 출가시킨
7 423km 대장정 호
8 [불교신문이 만
9 "수륙재로 모든
10 BBS불교방송 신

최신뉴스

• "막말 정청래 사퇴하
• [동정] 정도스님, 가사
• 심곡암, 코로나19로
• 강릉사회복지관 소외
• 영등포장애인복지관
• 청주불교방송 11월6
• [25교구 뉴스] 봉선사
• 역사적 상처 치유...1
• 정해림 승무 '2021 정
• 일진베어링, 경주장애

딸 박선민 씨도 “처음 1,2일차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면서 머릿속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주변에 감사하게 생각되는 일도 많아졌다”며 “내 두 다리로 직접 이 길을 걷는 자체가 참 고마운 일로 느껴진다”고 했다. 다정스레 어머니 팔짱을 끼던 박 씨는 “언젠가 다시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건강히 두 발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”고 덧붙였다.

고령=박봉영 기자 bypark@ibulgyo.com
이경민 기자 kylee@ibulgyo.com

저작권자 ©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박봉영 기자 | 이경민 기자
다른기사 보기

관련기사
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] ① 비바람 불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] ① 함께 걷는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] ② 삼보의 의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] ① 한국불교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] 245km 걸어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] 가야산에 이르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특집] 불교중흥을 위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] ② 순례단 찾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] ① 견디고 참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] 조금만 더 가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] ② 자승스님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] ① 청매선사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] 힘들어도 자비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] 지리산 가거든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] 안개 자욱한 ...
- [영상]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...한국불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] ② 사찰 참배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] ① 누적 295k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] ② “부부 아니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] 발톱이 들리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] 사명감 하나로 밤낮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] ② ‘적극적 포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] 긴장 속 호국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] 길 위 수장의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] ② “우리 모두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] ① 마지막 고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] 대장정 회향...

댓글 0

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.

✓ **최신순** 추천순

수행&신행 ‘맘마미아’ 뮤지컬 가수 등...
문화 정해림 승무 '2021 정해림 찰나의 ...
기획&연재 [주제가 있는 사찰 기행] 화...
출판&문학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시 읽...
학술&문화재 동국대 동서사상硏 제16...
복지&상담 강릉사회복지관 소외계층 ...

법공양 (기획PR)

우)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(견지동),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| 편집국 : 02-733-1604 | 구독문의 : 02-730-4488 | 광고문의 : 02-730-4490
사업자등록번호 : 102-82-02197 | 정기간행물·등록번호 : 서울특별시 다06446 | 창간일 : 1960-01-01 | 등록일 : 1980-12-11
제호 : 불교신문 | 발행인 : 원행스님 | 편집인 : 현법스님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여태동
Copyright © by 불교신문.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・복사・배포를 금합니다.